

함안 북촌리 919-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소규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2024. 4. 18)

○ 조사명 : 함안 북촌리 919-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발굴조사

○ 장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919-7번지

○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오후3시

○ 조사개요

- 조사면적 : 300m²

- 변경허가 : 발굴제도과-2833호(2024. 3. 18.)

- 조사기간 : 2024년 3월 20일 ~ 2024년 4월 18일 현재(현장조사일수 22일 중 13일 소요)

○ 조사결과

- 발굴조사 결과 지표하 65~120cm 정도에서 조선시대 함안읍성 동벽 체성 및 치(雉), 해자 호안 석축 및 근현대 배수로 1기가 확인되었음.

유물은 분청사기 저부편, 백자 저부편, 기와편이 기초 정지층 및 뒤채움석 등에서 소량 확인되었다. 분청사기편은 선문, 화문 등 인화기법 및 귀얄기법이 확인되며, 백자편은 태토빛 음받침흔이 확인되어 16세기에 축조 및 증축된 시기성을 반영하는 유물로 보인다. 또한 함몰된 석재 주변 등 상부 교란토에서는 다량의 근대 옹기 구연부편 및 동체부편과 소량의 조선 후기 백자 저부편 등이 확인되어 읍성 폐기 시점의 유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부에 설치한 탐색 피트에서 확인된 부석유구에서는 소량의 도질 토기 호편, 통일신라시대 선문 수키와편, 청자편이 미량 확인되어, 체성 하부에 앞선 시기의 유구가 유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 조사대상지 원경(동→서)



사진 2. 시굴조사 완료 후 전경(직상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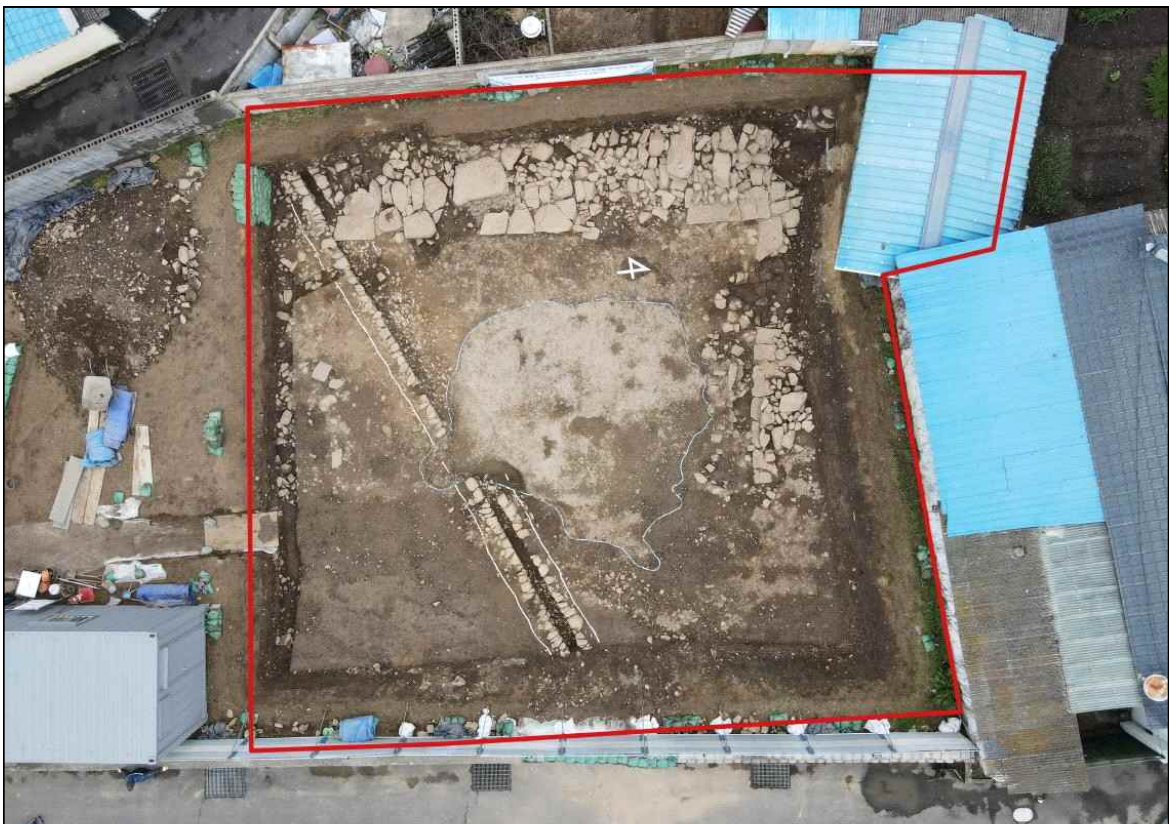


사진 3. 근현대 배수로 조사후 전경(직상방)